

자살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요소 및 실태 분석

-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Design Elemen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Multi-family Housing for Suicide Prevention and Empirical Analysis

- Focused on Public Rental Housing

이승지* Lee, Seungji | 이은진** Lee, Eunjin | 노태린*** Noh, Tae Ri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design elements that affect suicide, and then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in terms of suicide prevention and suggest implication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Results:** As a result of extracting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at affect suicide suggested in a total of 18 papers, 15 variables were extracted and organized into major categories such as housing type, health and welfare facilities, leisure and cultural facilities, and living environment. Next, we selected a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 with a relatively high suicide rate among multi-family housing as the case,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facilities were insufficient, and apart from the quantitative satisfaction of the rest, various problems were exposed,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users according to age and insufficient management in terms of the actual use of residents including suicide attempters.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design direc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suicide preven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olve the exclusion phenomenon that appears in space and programs. Third, when planning a space for suicide prevention,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of high-risk groups should be reflected.

주제어: 자살예방, 자살률, 주거환경 계획, 이해관계자 인터뷰

Keywords: Suicide prevention, Suicide rate, Residential Environment Design, Stakeholder Interview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높은 자살률로 인하여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특히 [그림 1]을 보면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국가들과 비교 시 상당한 차이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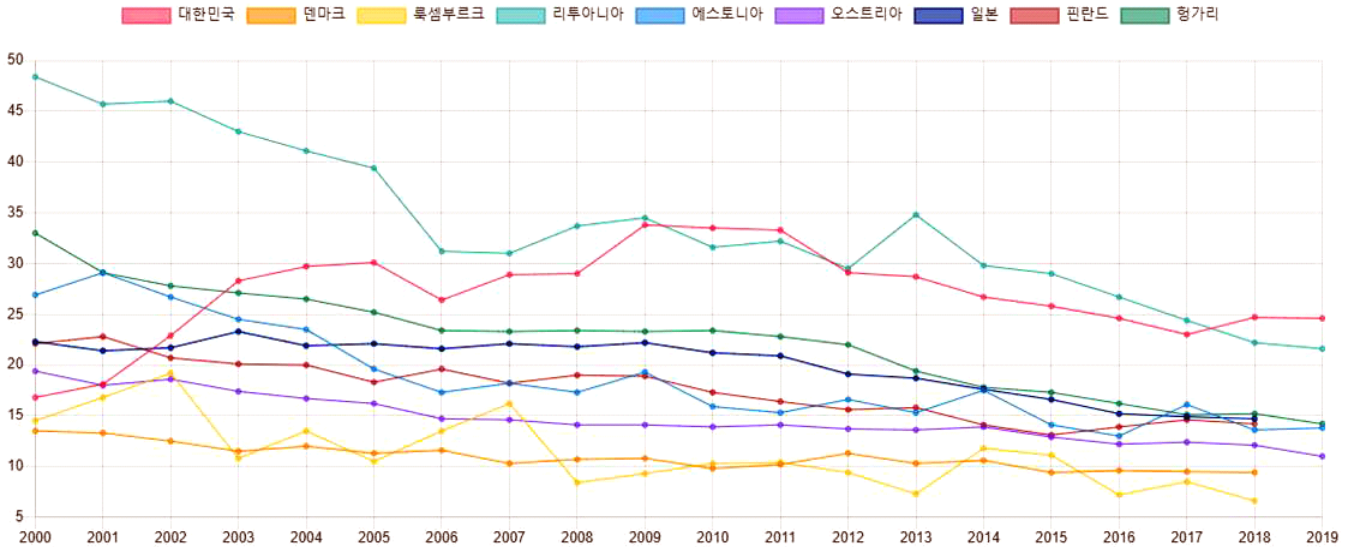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살문제를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식하고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관계부처합동 회의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논의될 정도이다 (관계부처합동,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하던 자살률은 2018년과 2019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김주영 외 3인, 2017). 이 중 공간적 요인은 직접적인 자살 동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살 문제의 심각성 및 복합성을 감안하여 범사회적인 노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요인에

* 이사, Ph.D, 교수, 대학원 헬스케어환경디자인전공, 인천가톨릭대학교 (주저자 : seungji@iccu.ac.kr)

** 회원, 석사과정, 대학원 헬스케어환경디자인전공,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신저자 : pointbright@naver.com)

*** 이사, Ph.D, 대표, 겸임교수, 노태린앤어소시에이츠, 대학원 헬스케어 환경디자인전공, 인천가톨릭대학교(passion-4@hanmail.net)



[그림 1] OECD 주요국가 자살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명 당 명) (출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데이터포털)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영란(2013)은 일본이 10여 년의 노인자살대응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은 것의 원인 중 하나로 정책 내용이 정신건강적 측면에 집중되고 경제 및 사회복지 분야로 확장되지 못하였던 것을 언급하였다. 이렇듯 자살예방 정책은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고려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살의 영향요인 중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그 중 특히 인간의 기본적 생활공간인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이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끼치는 주거환경 계획요소를 도출한 후,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요소들에 대하여 자살예방 측면에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우선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끼치는 주거환경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분석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사회복지, 보건복지, 인구학, 건축 등의 분야에서 심사를 통해 내용이 검증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고찰하고,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학술지 논문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외하였는데, 중복되지 않음이 확인된 학술대회 발표 논문 두편을 포함하였다.

내용적으로는 첫째, 자살의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및 우울에 이르기까지로 주제를 확장하지 않고, 자살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다루는 연구로 한정하였다. 둘째,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주거환경을 다루는 연구를 선정함에 있어 주택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지역적 차원의 환경까지 포괄하였다. 이는 주거환경은 인간의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부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한정하였다. 주거환경이 가지는 세계적인

보편성은 이미 선행연구들이 국외문헌을 검토하여 변수들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은 각 나라의 사회구조적 특성이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의 인구 및 경제적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활용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국외문헌에 발표된 논문 이더라도 우리나라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 한편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총 18편의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대하여 자살예방 측면에서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연구자에 의한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인터뷰를 포함한다. 분석 대상지로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 유형에 해당하며,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만큼 우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 대상지는 자살시도자, 거주자, 사회복지사 등의 인터뷰 섭외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이 특정 요소의 개수와 면적 등의 양적인 지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 여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해당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은 그 영향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이용자 인터뷰를 통한 실태 분석을 하였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즉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소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실태를 이해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2. 주거환경 계획요소 도출

2.1 문헌분석

자살이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학계에서도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자살에 대한 기존 연구는 우울, 음주, 심리, 질병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기초한 미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점차 자살을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뒤르켕(Durkheim)의 아노미(Normlessness) 이론에 기반하여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초한 거시연구로 확장되어 왔다. 아노미 이론은 자살을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통합과 규제의 기능 약화로 아노미가 발생되어 일어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였다(윤우석, 2014).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구조의 일부로서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자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자살예방법이 제정된 시기와 중첩된다. 분석 대상 문헌 총 18편의 대상인구, 연구방법, 주거환경 관련 변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대상인구

총 18편 중 노인의 자살률로 한정된 연구가 4편(1, 4, 5, 9번)이었으며 관련 연구가 시작된 초반부에 주로 이루어졌다. 노인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고 생활영역이 축소되므로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의 질이 특히 중요한 연령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자살영향 요인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자살영향 요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차별화되지는 않았다.

2) 연구방법

총 18편의 연구 중 13편의 연구가 자살률 (또는 자살태도 및 자살생각)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상관관계를 알고자 하는 주거환경 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율, 1인당 GRDP와 같은 경제적 변수들과 이혼율, 음주율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하였다.

그 외 활용된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공간구조 분석이 있다. 인과관계를 탐구해보는 실증분석(8, 17번)은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특히 17번은 지역 사회 프로파일링이라는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자살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표분석, 관찰, 주민면접 등 정성적으로 심도 깊게 탐구하여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구조 분석(11번)은 사회적 교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스페이스 신택스(Space Syntax) 이론의 공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3) 주거환경 관련 변수 및 연구결과

각 연구는 대부분 선행연구 분석과 각 연구의 목표와 관련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1번은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노인여가시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선정하였고, 2번은 자살률에 보건복지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사회복지 인프라로서 사회복지기관과 노인복지기관을, 정신보건 인프라로서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7번은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을, 10번은 대기오염과 같이 세부적인 변수를 대상으로 자살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반면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다양해짐에 따라 후기에는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12, 13, 15번은 선행연구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변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변수가 늘어났으며 유사한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 18편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환경 관련 변수들을 모두 추출한 결과, [표 2]와 같이 15개의 변수들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주거형태, 보건복지시설, 여가문화시설, 생활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주거형태 항목에는 도시와 농촌, 인구밀도, 주거지 유형, 저층과 고층 변수를 포함하고, 보건복지시설 항목에는 사회복지시설, 정신건강시설, 의료시설이, 여가문화시설 항목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교류공간이, 생활환경에는 노후도, 빈집, 무질서, 환경오염을 각 포함하여 구분하였다.

일부 변수들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각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사용한 변수 및 지표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도시/농촌 변수의 경우, 3번은 상수도 보급률과 폐수배출업소의 수를, 5번은 도시와 농촌 거주 자체를, 12번은 농업과 어업 비율을, 14번은 시가화면적을 변수로 각 사용하였고, 그 결과 3, 5, 12번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지 농촌에 거주하는지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나, 14번 연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각 변수를 선택한 연구의 개수가 차이가 있고 동일한 지표와 통계 방법 등을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각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변수로 고려하였는지의 여부를만을 참고하였다.

2.2 소결 : 실태 분석의 틀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4개의 대분류와 15개의 변수들을 자살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요소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다음 단계는 도출된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대하여 실제 사례지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측면에서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상지를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주거환경 계획요소 중 단일 아파트 단지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분류의 주거형태 중에서 주거지 유형을, 보건복지시설과 여가문화시설은 모든 요소를, 생활환경 중에서는 노후도, 무질서를 선택하여 총 10개의 변수로 구성되는 실태 분석틀을 구축하였다([표 2] 참조).

[표 1] 선행연구 분석

연구 번호	저자	년도	대상인구	연구방법	주거환경 관련 변수 (통제변수 제외한 독립변수)	주요 내용
1	김기원 외 1	2011	노인	상관관계 통계분석	· 노인여가시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여가시설, 체육시설
2	윤명숙 외 1	2012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사회복지 인프라 : 사회복지기관, 노인복지기관 · 정신보건 인프라 :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변수 모두 자살률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정신보건 인프라가 더 높은 상관관계
3	강은정	2013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재정자립도, 상하수도 보급률, 폐수배출업소	도시에 비하여 군(농촌)에서의 자살률 차이를 보기 위한 변수들로서, 모두 상관관계 있음
4	허지정 외 1	2013	노인	상관관계 통계분석	·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노후단독주택비율, 빈집	지역의 주거환경 특성 변수 모두 노인자살률과 상관관계 있음
5	문영희 외 1	2013	노인	상관관계 통계분석	· 도시, 농촌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그리고 건강관련 요인이 도시와 농촌에 따라 차이를 보임
6	윤우석	2014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사회해체이론에서의 지역사회의 특성들과 자살태도/생각 사이의 상관관계로서, 변수 모두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무질서만 자살태도에 직접 영향. 다른 변수들은 무질서를 통해 그 영향이 매개됨
7	조수미 외 1	2014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문화시설(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도시공원	역동성이 있는 도시공원과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만이 자살률 감소에 영향
8	김영옥 외 1	2015	전체	실증분석	· 주거지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공간적 특성 : 주변과의 연계, 공적공간	주변과의 연계가 차단되고 공적공간이 가장 미흡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는 연립주택 자살률이 가장 높음
9	서인균 외 1	2015	노인	상관관계 통계분석	· 생활환경 : 근린시설 및 지역사회시설 이용 편리도 · 노인에 대한 관심 :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 행사, 노인복지시설	노인이 경험하는 지역사회환경은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침 (완전매개효과)
10	Young don Kim 외 7	2015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대기오염 정도 :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변수는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
11	김영옥 외 1	2016	전체	공간구조 분석	· 주거지 유형 : 영구임대아파트, 판자촌 · 공간구조 : 공간 네트워크 (Space Syntax의 전체/국부통합도)	판자촌에 비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간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자살률이 더 높음
12	이지은 외 1	2016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빈집, 노후단독주택비율, 공원, 농업/어업 비율	빈집 비율과 공원 면적이 상관관계가 있으며, 농업/어업 비율이 높은 비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유의한 영향
13	김주영 외 3	2017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인구밀도, 공원, 빈집, 노후도, 주거유형, 공간구조(네트워크) (자료취득 이유로 공원과 빈집은 통계분석 제외)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밀도, 주거유형, 공간구조
14	전해성	2017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공원, 의료기관, 시가화면적, 체육시설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체육시설로 한정적
15	정은희 외 1	2017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물리적 환경 변수 :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시설, 문화시설 · 자연적 환경 변수 : 공원, 주거환경의 질 (생활폐기물 배출량), 대기오염 (미세먼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문화시설, 공원, 대기오염
16	김영옥 외 2	2019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임대/분양, 고층/저층	임대아파트의 자살률이 더 높으며, 고층/저층에 따라 자살률 차이 (분양아파트에서는 차이 없음)
17	최명민 외 2	2019	전체	실증분석	· 주거환경의 질, 거주지에 대한 낙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프로파일링을 통하여 도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특징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경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확인
18	황종남 외 1	2020	전체	상관관계 통계분석	·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공기질, 수질 등) ·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체육시설 등)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자살생각 확률 증가

[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요소 도출

대분류	변수	연구번호																		본 연구 실태 분석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거 형태	도시/농촌			●		●							●		○					-
	인구밀도												●							-
	주거지유형								●			●		○			●			◆
	저층/고층																●			-
보건 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	●		●					●								●		◆
	정신건강 시설		●													○		●		◆
	의료시설	○	●												○	○		●		◆
여가 문화 시설	체육시설	●													●					◆
	문화시설							●								●				◆
	공원				●			●				●	○	○	●					◆
	교류공간							●			●		●							◆
생활 환경	노후도				●								○	●						◆
	빈집				●								●	●						-
	무질서							●								○		●	●	◆
	환경오염										●					●			○	-

각 연구에서 변수들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 : 상관관계 있음, ○ : 상관관계 없음, ◐ : 일부 요인은 상관관계 있음

3. 실태 분석

분석 대상지로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로서 1994년 준공된 복도식 아파트이다. 각 15층의 5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1,065세대이다. 주택형은 24.42㎡, 30.81㎡, 39.58㎡으로 작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 분석은 첫째, 물리적인 조성 중심의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지역적 분석범위는 일반적으로 도보권으로 인식되는 1km 내로 설정하였다. 둘째, 실제 대상지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 실태 및 체감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자살 예방 측면에서 주거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인터뷰는 해당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살 시도자(2명)와 거주민(3명), 그리고 해당 단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5명), 관리사무소 직원(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표 3] 분석 대상지 개요

항목	내용	
위치	서울시	
임대 종류	영구임대	
준공 일자	1994	
건물 형태	복도식	
주택형 (㎡)	24.42 30.81 39.58	
세대수	1,065	
층수	15층	
대표 기준층 평면도		

[표 4] 인터뷰 개요

항목	내용			
기간	2020.5.26. - 6.3			
대상	자살시도자	거주민	사회복지사	관리사무소 직원
명수	2명	3명	5명	1명
장소	자택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관리사무소
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30분	1시간

3.1 주거형태

분석 대상지의 주거지 유형은 아파트로서,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을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시선을 불편해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단지가 영구임대주택이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으며, 이러한 외부인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이 모여 주민들이 자신의 단지에 대하여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단지 내 외부공간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엘리베이터 옆 빈공간에서 전부치기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단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주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해당 단지는 전용면적 24.42㎡, 30.81㎡, 39.58㎡로 구성되는데, 좁아서 일상적인 생활 짐 정리도 쉽지 않아 정리정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한 환경을 유발하게 된다.

3.2 보건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100세대 이상에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다. 그 외 도보권 내에 노인정, 경로당,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과 뇌성마비복지관과 같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약 20개소 이상 위치한다.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자살시도자 중 한 명은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상당히 의존하며 일주일 동안 그 시간만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만이 참여한다는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에서 다른 주민과의 만남이 생활의 교류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보였다.

정신건강시설의 경우, 도보권 내 정신의료기관이 1개소 있을 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등의 시설이 부재하였다. 2번 선행연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기관 중 정신의료기관이 자살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

계를 맺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즉 정신의료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감소하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부족한 정신의료기관은 문제로 판단된다. 반면, 의료시설은 내과, 소아과, 치과 등 약 35개소 이상으로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여가문화시설

체육시설의 경우, 도보권 내 별도의 체육시설은 없지만, 인접한 공원과 단지 내 놀이터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내 운동실이 조성되어 있다. 해당 시설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제한적으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중년층만 되어도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시설의 경우, 전시시설, 공연시설, 영화관이 각 1개소 위치하여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인터뷰 중에도 지역 내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다수의 연구에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공원의 경우, 해당 단지는 여러 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단지의 지상층이 최근 아파트들과 같이 전체 조경공간으로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단지 자체가 오래되어 수목이 울창하게 성장하여 있고, 단지와 인접하여 역시 수목이 풍성한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보권 내 어린이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 위치하는데 그 중 1개소는 동네 뒷산으로 들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인터뷰 조사 시 주민들은 수목이 울창하고 공원이 쾌적하여 좋다고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외롭다고 느낄 때 동네 산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류공간의 경우, 현장조사에서 단지 내 교류공간들을 조사 한 결과, 정자 및 벤치 등이 곳곳에 조성되어 있어 교류공간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접근성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위의 시설들이 노후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물리적인 조성 실태와는 다르게 이용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이용 실태 조사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현장조사 시 정자 및 벤치의 개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주민들은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어르신, 주취자,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주로 상시 점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어르신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연령층이 끼지 못하였고, 주취자가 점유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교류공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서 교류 활동이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및 관리사무소는 정자나 벤치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주취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넓은 공간을 필요 하기 때문에 모여 있기에 적합한 단지 진입부 쉼터에서 교류를 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전동휠체어가 단지 진입부에 모여 있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거주민과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교류공간과 활동을 설명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데 반하여, 자살시도자는 교류보다는 혼자를 희망하였다. 혼자 돌볼 수 있는 화단을 희망하였고,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움 해소를 위하여 자아성찰의 시간 등을 언급하였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교류를 위한 과도한 프로그램과 공간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취미활동 중심의 소모임 활동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주민들은 지역 내 마트와 재래시장과 같은 상업시설, 그리고 단지 내 텃밭 및 근처 주말농장과 같은 도시농업 관련 활동 공간 역시 주민들 간 교류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내 교류공간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생활환경

노후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건축된 지 몇 년이 경과되었는지 문제보다는,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의 원리 중 '유지관리'가 지속적 시설 및 공간 관리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일탈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장조사 결과 단지 진입부에 위치하는 상가건물에 공실이 있고 외관이 노후되어 단지 첫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계사판 등 단지 내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방치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뷰 조사에서도 자살시도자는 창문 밖에 보이는 아파트의 노후된 외관이 우울한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경관이 삭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라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 미적용된 곳이 많고, 주거지 방음이 미흡하여 옆집의 소음이 잘 들리는 생활상의 문제점, 방법시설 및 가로등 부족으로 밤에 외출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조사되었다.

무질서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쓰레기 및 분리수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통이 모두 노출되어 시각적인 무질서를 야기하였다. 그 외에도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휠체어가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사인물이 혼잡스럽게 추가된 흔적들은 무질서한 느낌을 가중하였다. 인터뷰 결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은 주차장, 반려견 증가로 인한 소음 및 배설물 문제, 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문제, 좁은 복도에 물건과 전동휠체어 방치 문제 등이 무질서의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단지 내 환경정리가 미흡한 것도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번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중 무질서만 자살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조사되었다. 즉 공동체 형성보다 무질서한 주거환경 개선이 자살예방에는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동일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무질서에 둔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금의 고령층은 도시환경보다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무질서한 환경에 둔감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환경 및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시대에 성장한 세대는 무질서한 환경에 조금 더 예민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무질서한 환경의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 크게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3.5 소결 : 실태 분석결과

자살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대하여 연구자에 의한 현장조사와 대상지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정리한 실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형태 중 주거지 유형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분위기를 주민들이 깊게 체감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보건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참여하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신건강시설은 자살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소로 매우 부족하였고, 반면 의료시설은 충분하였다. 셋째, 여가문화시설 중 체육시설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정 연령층이 주도적으로 이용한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문화시설은 매우 부족하였으며, 다양한 공원이 있었고 울창한 녹지로 만족도가 높았다. 교류공간은 현장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특정 집단에 의해 교류공간이 점유되어 다른 사람들은 교류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은둔형이 많은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류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생활환경 중 노후도는 실질적으로 지어진 연도와 관계없이 관리되지 않은 시설과 경관이 노후된 느낌을 가중시키고 있었으며, 무질서한 생활환경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사례지 대상 실태분석

변수		현장조사	인터뷰	실태
주거 형태	주거지 유형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편견/시선 불편 · 아파트의 부정적인 분위기 · 너무 작고 획일적인 집 구조 불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낙인 및 분위기
보건 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 종합사회복지관이 단지 내 위치 (법적 요건) · 노인 및 장애인 대상 약 20개소 이상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참여하는 사람만 주로 참여 · 생활의 교류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이지만 제한적인 참여자
	정신건강 시설	· 정신의료기관 1개소	-	정신건강시설 부족
	의료시설	· 내과, 소아과 등 약 35개소 이상	-	의료시설 충분
여가 문화 시설	체육시설	· 별도 체육시설 없음 · 인접한 어린이공원과 단지 내 놀이터에 설치된 운동기구 · 종합사회복지관 내 운동실	· 특정 연령층 등 이용하는 사람이 제한적	이용률 저조, 이용층 제한 선입견
	문화시설	· 전시시설 1개소 · 공연시설 1개소 · 영화관 1개소	-	문화시설 부족
	공원	· 단지 내 조경공간의 수목 풍성 · 단지와 인접하여 공원 위치 · 근린공원 2개소 (1개소는 둘레길 조성) · 어린이공원 4개소	· 수목이 울창하고 공원과 인접 · 외로울 때 동네 산책	공원 만족도 높음
	교류공간	(단지 내) · 정자 5개소 · 벤치 24개소 · 광장, 빨래방 · 단지 내 교류공간들의 접근성 좋음 · 시설물의 노후 및 관리 미흡	·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 부족 · 특정 집단이 교류공간 점유 경향 - 어르신 : 다른 연령층이 끼지 못함 - 주취자 : 교류공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 전동휠체어 : 단지 진입부 쉼터를 점유하여 단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 은둔형 주민을 위한 가벼운 교류공간 필요 -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교류, 소모임 활동 중심 · 주민들은 지역 내 상업시설 및 도시농업 공간을 교류공간으로 인식	특정 집단에 의한 점유 문제, 은둔형 주민을 고려한 교류공간 필요
생활 환경	노후도	· 단지 상가건물의 낙후 · 게시판 등 시설물 노후	· 오래되어 보이는 아파트 경관 · 지상/지하 주차장 경관 삭막 · 유니버설디자인 미적용 · 주거지 방음 미흡 · 방법시설 및 가로등 부족으로 밤에 외출 어려움	관리 미흡으로 노후된 느낌 가중
	무질서	· 쓰레기 및 분리수거장의 시설 노출 · 무분별하게 주차된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휠체어 · 혼잡스러운 사인물	· 차들이 많아서 항상 주차공간 부족 · 반려견 증가로 인한 소음 및 배설물 문제 ·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문제 · 좁은 복도에 물건/전동휠체어 적치 · 단지 내 환경정리 미흡	무질서한 생활환경 요인 다수

4. 결론

이 연구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살문제의 복합성을 감안하여 자살예방의 노력을 기존의 개인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대한 노력에 더하여 사람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적 요인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살에 영향을 끼치는 주거환경 계획요소를 도출한 후,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해당 요소들에 대하여 자살예방 측면에서 그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변수로서 도출하고 자살률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해당 요인들에 대하여 실제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와 의의를 가진다.

기준에 따라 선정한 총 18편의 논문에서 제시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관련 변수들을 추출한 결과, 15개의 변수들이 추출되었고 이를 주거형태, 보건복지시설, 여가문화시설, 생활환경의 대분류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유형인 아파트 중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사례 대상으로 선택하여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태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일 아파트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변수를 선택한 결과 총 10개의 변수로 정리되었다. 분석결과, 해당 요소들 중 정신건강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는 양적인 충족과는 별개로 자살시도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이용 실태 측면에서 연령 등에 따른 이용층의 구분과 관리 미흡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요소들의 구체적 계획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선행연구들은 자살예방을 위한 변수들의 양적인 지표와 자살률의 관계를 밝히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특정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주민들과의 인터뷰 결과 조성 실태 및 이용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즉 양적인 확보를 넘어서 실제 자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 방향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간 및 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나는 배제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도 결국 사회적 배제의 문제이며, 사회복지시설도 체육시설도 제한적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류를 위한 공간임에도 특정 집단이 공간을 점유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공간 이용에서 내재된 갈등을 방지할 경우 고정적인 편견이 증대되어 집단 단 의사소통은 점점 감소하고 적대감과 부정적 태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단지의 환경개선이라는 상위의 공통목표를 설정하고 같이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시 자살고위험군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은둔형의 소극적인 사람들이 편하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

으면서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 시설물, 프로그램 등의 디자인 방안이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자살예방 계획요소에 대하여 실제 대상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실태 분석을 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한 개소의 대상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도출된 실태분석 결과는 일반화될 수 없고 이를 통한 시사점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대상지 연구를 확대하여 일반화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계획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정, 2013, "지역의 자살률 차이와 관련된 구성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 41-52
- 관계부처합동, 2019,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4247>
- 김기원, 김한곤, 2011,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한국인구학, 34(4), 31-54
- 김영옥, 김주영, 2015, "자살자의 거주지 유형에 따른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A구에 대한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16(1), 85-99
- 김영옥, 김주영, 2016, "영구임대아파트와 판자촌의 공간구조와 자살률 비교 연구", 도시설계, 17(1), 135-146
- 김영옥, 지봉근, 김주영, 2019, "고층아파트의 저층과 고층의 자살률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5(8), 57-64
- 김주영, 양하, 장선희, 김영옥, 2017,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7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52-258
- 문영희, 임미영, 2013, "거주지역별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도시와 농촌의 비교",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3), 551-563
- 서인근, 이연실, 2015, "지역사회환경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69, 383-415
- 오영란, 2013,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 고찰: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관점", 한국사회정책, 20(1), 9-47
- 윤명숙, 최명민, 2012,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 및 정신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0, 213-238
- 윤우석, 2014, "지역사회의 생태적 특성과 자살태도 및 자살생각의 관계 검증", 한국범죄학, 8(1), 163-193
- 이지은, 김갑성, 2016, "지역의 주거환경 특성이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2016 한국주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21-31
- 전해정, 2017, "도시 주거환경이 지역주민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GIS와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학보, 70, 56-66
- 정은희, 송나경, 2017,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이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2009-2015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4(5), 638-647
- 조수미, 신형덕, 2014,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이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8), 4874-4880

- 최명민, 성정숙, 이현주, 2019, "어떤 지역사회가 자살에 취약한가 - 일 지방대도시 자살다발지역에 관한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71(2), 37-64
- 황종남, 오종목, 2020, "대도시 거주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1(4), 143-155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데이터포털 <https://spckorea-stat.or.kr>
- 허지정, 최막중, 2013, "지역의 주거환경 특성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1(4), 49-63
- Youngdon, Kim; Woojae, Myung; Hong-Hee, Won; Sanghong, Shim; Hong Jin, Jeon; Junbae, Choi; Bernard, J. Carroll; Doh Kwan, Kim, 2015,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Suicide in South Korea: A Nationwide Study", PLoS One. 2015 Feb 18;10(2):e0117929.

접수 : 2021년 07월 16일
1차 심사완료 : 2021년 08월 09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08월 31일
3인 익명 심사 필